

온라인 서점 리뷰 내용분석을 통한 도서 관련 어필 요소 탐색*

Exploring Book-related Appeal Factors Using Content Analysis of Online Bookstore Reviews

심지영 (Jiyoung Shim)**

초 록

본 연구는 온라인 서점 리뷰에 드러난 독자의 도서이용 경험에 기반해 도서 선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 관련 어필 요소(appeal factor)를 식별하였다. 다양한 주제, 장르/포맷으로 구성된 도서 187건에 대한 국내와 영미권 리뷰 1,094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한 결과, 독자와 저자, 도서의 일반적 요소(언어/형식, 주제/소재), 소설, 비소설 구분에 따른 어필 요소를 파악하였다. 기존 독자자문 서비스의 어필 요소를 세분화한 본 연구결과는 독자의 도서탐색 및 이용을 돕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독서자료시스템 패킷 설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book-related appeal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and use of books based on readers' experiences revealed in online bookstore reviews.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on 1,094 Korean and English reviews of 187 books with various topics and genres/formats, the appeal factors were identified by dividing them into readers, authors, general elements of books(language/format, topic/subject), fiction, and non-f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segmented the appeal factors of existing readers' advisory services, will be useful not only for improving library services to help readers search for and use books but also as data for enhancing the design of facets in reading material systems.

키워드: 도서이용, 어필 요소, 내용분석, 도서 리뷰, 온라인 서점
book use, appeal factor, content analysis, book reviews, online bookstor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137).

**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연구교수(jiyoung_shim@yonsei.ac.kr)

■ 논문접수일자: 2024년 12월 1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12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41(4), 341-368,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4.34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3년 조사 기준, 성인 독서율은 10년 전 대비 29.2% 감소한 43.0%로,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성인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학생 독서율은 최근 10년간 90~95%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95.8%로 소폭 상승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그러나 의무교육 기간 이후의 성인 독서율의 급격한 감소가 보여주듯, 학생 독서율은 개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학교 교육 활동의 산일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에서도 학생 독서율 상승을 초중고 학교 현장의 독서지도 활동의 영향으로 해석하며, 학교 독서율 영향 요소로 ‘한 학기 1권 읽기’, ‘주 1회 독서시간’, ‘책 1권 읽기 의무제’ 등의 프로그램을 언급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독서와 관련된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이 성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도서관 정보서비스 영역은 독서 지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독서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 독서 관련 연구는 “독자와 독서자료와의 상호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독서의 본질적 측면”(Gephart, 1970, 174)보다는 독서 프로그램 등 외형적 환경 조성이나 독서 경험이 시작되는 저연령 집단을 독서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측면에 주력하여왔다. 김판준(2024)도 국내 독서 관련 연구가 학생 독자 집단에 집중되며, 독서 자체보다 교육을 통한 치료와 교정, 공공도

서관의 문화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독서진흥 사업에 집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독자와 독서자료 관련 연구가 주요 주제 영역으로 드러나며, 세분화된 유형의 독서자료와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지만(김판준, 2015), 독자와 독서자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독자 유형별 자료 요구 분석으로 제한되며 성인 독자의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료의 주요한 제공기관인 도서관 서비스에서 독자가 독서자료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서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고려하는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도서관 환경에서 독자와 독서자료를 원활하게 연계해주기 위해 개발된 어필 요소(appeal factor)를 기반으로 독자의 관점에서 도서이용과 관련된 세분화된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독자를 포함한 보편적 도서이용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 리뷰를 수집하며, 도서의 전주제와 장르/포맷 정보가 반영된 도서 샘플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독서 활동의 주체인 독자의 관점에서 세분화된 도서이용 속성을 파악한 본 연구결과는 기존 독서자문서서비스의 어필 요소 체계를 정교화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독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서관은 물론 광범위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서탐색 시스템의 패시 설계 요소에 적용되어 개별 독자의 도서탐색 및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어필 요소

어필 요소는 “독자들이 도서와 독서 경험에 대해 갖는 다양한 매력을 설명하는 용어 집합”(Wyatt, 2020, 436)으로, 도서관 독자자문 서비스에서 독자에게 적합한 독서자료를 추천해 주기 위해 개발된 체계다. 공공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소설에 대한 어필 요소 개념이 도입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Saricks, 2005; Saricks & Brown, 1989), 자료의 속성과 독자의 관점이 추가된 어필 요소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도서와 관련해서는 비소설 자료에 대한 어필 요소(Alpert, 2006; Wyatt, 2007), 세분화된 소설 장르에 대한 어필 요소(Wyatt & Saricks, 2019), 도서와 더불어 독자의 관점이 추가된 어필 요소(Dali, 2014), 도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어필 요소(심지영, 2022b)가 각각 제안되었다. 한편, 비디오 게임을 추천하기 위한 어필 요소(Lee et al., 2017), 웹툰을 읽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어필 요소(Cho et al., 2022)와 같이 독서자료의 세분화된 속성에 특화된 어필 요소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서 관련 어필 요소는 크게 소설과 비소설, 도서와 도서 이외의 관점이 추가된 형태로 제안되어왔다. 소설 고유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어필 요소는 ‘전개 속도’, ‘등장인물의 성격’, ‘스토리 라인’, ‘이야기 구조와 어조(frame and tone)’, ‘문체(style)’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Saricks, 2005), 소설과 차별화되는 사실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주요 속성으로 하는 비소설 자료의 어필 요소들도 Alpert(2006)

와 Wyatt(2007)에 의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Alpert(2006)는 ‘사실에 기반한 주제/소재(documentable subject matter)’, 세부내용을 철저히 수집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는 ‘철저한 조사(exhaustive research)’, 내러티브 맥락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the scene)’, 글쓰기의 질을 의미하는 ‘문체(style)’, ‘주제(theme)’, ‘지식 습득(learning)’을 비소설 어필 요소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소설 어필 요소를 제안한 Wyatt(2007)는 Saricks(2005)의 소설 어필 요소(‘전개 속도’, ‘등장인물의 성격’, ‘스토리 라인’, ‘어조/분위기(tone)’, ‘언어’)를 포함하면서도, 사실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어필 요소(‘내러티브 맥락(narrative context)’, ‘주제(subject)’, ‘기술 혹은 설명의 세부내용(detail)’, 독자의 ‘지식 혹은 경험 습득’, ‘배경(setting)’, ‘도서 유형’)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Dali(2014)와 심지영(2022b)은 이용자 연구를 통해 도서와 도서 이외의 관점이 추가된 어필 요소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Dali(2014)는 기존 도서 중심의 어필 요소 체계에 독자 관점을 새롭게 추가한 독서 어필(reading appeal) 체계를 제안하며, 도서 관련 어필(book-related appeal)과 독자 중심 어필(reader-driven appeal) 요소로 구분하였다. Dali(2014)의 도서 관련 어필 요소(‘도서 유형’, ‘저자’, ‘출판사’, ‘글쓰기 스타일(writing style)’, ‘정보적 가치 혹은 실용적 유용성’, 사전에 얻을 수 있는 ‘도서에 대한 정보량’, ‘도서에 대한 입수 가능성/접근의 용이성’, ‘표현 언어’)는 전반적으로 특정 장르에 치중하지 않고 일반 도서의 속성에 대응되는 특징을 드러낸다. 한편, 독자의 관점에서 도서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속성을 제시한 독자

중심 어필 요소는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상황, 요구, 기분', '친구 혹은 전문가의 추천', '도서, 저자,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 인기'로 나타났다. 심지영(2022b)은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필 요소를 도서 콘텐츠 내부에 존재하는 요소와 도서 콘텐츠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로 구분한 바 있다. 내부 어필 요소는 Saricks(2005)의 소설 어필 요소('전개 속도', '등장인물의 성격', '스토리 라인', '어조')와 Alpert(2006)의 비소설 어필 요소('지식/경험 습득', '주제', '내러티브

맥락', '기술/설명의 세부내용'), Wyatt(2007)의 비소설 어필 요소('언어', '배경', '도서 유형')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으며, 외부 어필 요소는 '사회적 반응', '도서 추천자', '출판', '저자', '독자'와 관련된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며, Dali(2014)의 독자 중심 어필 요소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독자와 창작자/배포자, 도서(일반, 소설, 비소설)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재구성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독자 관점에 대응된다고 구

〈표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어필 요소		소설	비소설		도서+독자	내부+외부
		Saricks(2005)	Alpert(2006)	Wyatt(2007)	Dali(2014)	심지영(2022b)
독자	호기심				R	E
	친구/전문가 추천				R	E
	도서/저자/시리즈의 인기				R	E
	도서에 대한 정보량				O	
	개인적 상황/요구/기분				R	E
	지식/경험 습득		O	O		O
	정보적 가치/유용성				O	
	입수 가능성/접근의 용이성				O	
창작자/배포자	저자				O	E
	출판사				O	E
도서	일반	언어	표현 언어	글쓰기 스타일/문체	O	O
	소설	주제	배경	자료 유형	O	O
	비소설	전개 속도	등장인물의 성격	스토리 라인	O	O
	비소설	작품의 어조	내러티브 맥락	기술/설명의 세부내용	O	O

* 본 표의 어필 요소 구분(독자, 창작자/배포자, 도서(일반, 소설, 비소설))은 본 연구에서 재구성함. 도서와 독자 어필 요소로 구분한 Dali(2014)의 독자 어필 요소는 R로 표기하였으며, 도서를 기준으로 도서 내부와 외부로 어필 요소를 구분한 심지영(2022b)의 외부 어필 요소는 E로 표기함

분한 요소는 Dali(2014)의 독자 중심 어필 요소와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내면적 요인과 외면적 요인”(변우열, 2015, 196-198)에 기반한다. 창작자/배포자의 관점은 저자와 출판사를 도서 외부에 존재하는 어필 요소로 구분한 심지영(2022b)의 연구에 근거하여 도서와 별개의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념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르게 표현된 어필 요소(예, 언어, 표현 언어, 글쓰기 스타일/문체)는 하나의 개념(예, 언어)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2.2 도서 리뷰 분석

정보학 분야에서 도서 리뷰 분석은 도서 리뷰에 긍정과 부정 등으로 표현된 의견, 감정에 주목하여, 이용자 선호요인 파악을 통해 도서 추천 결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예를 들면, Sohail et al.(2013)은 컴퓨터 분야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도서 리뷰에 드러난 긍정/부정의 감정어와 의견어에 기반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도서추천을 위한 7가지 분류 자질 중 ‘유용성(helpfulness)’과 ‘자료(material)’ 측면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감성분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최지은 외(2016)는 순수과학, 문학, 여행 분야에 관한 도서 리뷰를 수집하여, 도서의 속성(예, 구성, 그림, 내용)과 테마(예, 가족여행) 관련 핵심어를 추출하고 리뷰 문장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를 적용한 도서추천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한편, 도서 리뷰에 숨겨진 주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hoi와 Joo(2020)는 뉴베리상 수상 도서 20권의 도서 리뷰를 대상으로 토픽

픽모델링과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아동도서가 지닌 다양한 속성(저자, 캐릭터, 물리적 기술, 주제, 제목, 장르/형식, 수상, 독자대상, 시리즈, 감정, 평가(의견))을 파악한 바 있다. 송성전과 심지영(2022)은 Goodreads 리뷰 데이터의 샘플 구성 단계에서 다양한 토픽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평점, 도서, 이용자별로 구분한 도서 리뷰를 내용분석하여 7가지 범주(스토리, 캐릭터, 내용, 읽기, 글쓰기, 작가, 형식)의 도서 이용자 선호요인을 식별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도서 리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의견, 감정, 토픽 등을 추출하여 도서 이용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의 경우, 의견어 혹은 감정어 추출 과정에서 명시적 측면만을 반영하여 리뷰 텍스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Tubishat et al., 2018), 토픽 모델링 결과 분석에서도 자동으로 추출된 토픽이 어떠한 맥락에서 도출되었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Choi와 Joo(2020)는 토픽모델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으며, 송성전과 심지영(2022)은 토픽모델링을 샘플링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선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리뷰 분석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내용분석은 도서 이용자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와 실험 데이터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심지영, 2022b; Saarinen & Vakkari, 2013), 최근에는 도서 리뷰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북스타그램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북 개발(Singh & George, 2022)도 이루어지

는 등 도서 리뷰의 내용분석 관련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독자의 흥미 요소를 비롯한 도서이용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 리뷰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도서의 특정 분야(예, 컴퓨터 분야, 순수과학/문학/여행 분야 등), 특정 대상(예, 어린이 등), 영문 리뷰(예, Goodreads)로 제한되어 연구되어 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KDC 전주제를 대상으로 국내와 영미권 도서 리뷰를 결합하여 광범위한 샘플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도서 샘플 선정 및 리뷰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서 리뷰 분석 연구에서 특정 주제, 이용대상, 지역으로 제한되었던 도서 범위와 리뷰 데이터의 국가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샘플 선정 및 리뷰 데이터의 수집을 수행하였다. 도서 범위는 도서의 이용속성(KDC, 독자대상, 이용자 연령)을 고려하여 상대적 이용이 높은 인기대출도서를 선별하여 구성한 PBPL_9472 데이터셋(심지영, 2022a)을 표집틀로 하였다. 리뷰의 국가 범위는 국내와 영미권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A, K, Y와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서점으로 알려진 AZ 서점의 US 지역 이용자 리뷰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도서 관련 어필 요소의 대응일치분석과 내용분석에 각각 사용하기 위해 도서의

속성 정보(KDC 주제, 장르/포맷)와 리뷰 내 출현한 주요 어구 정보(AZ 서점의 mention(도서 리뷰에서 언급된 단어 혹은 구))도 도서 및 리뷰 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도서 샘플 선정 과정에서는 1)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주제와 장르/포맷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PBPL_9472 데이터셋(심지영, 2022a)으로부터 KDC 주제와 단일 장르/포맷 정보를 지닌 도서를 선별하고, 2) 국내 리뷰와 영미권 리뷰를 동시에 수집하기 위해 각 도서 ISBN 단위로 영어 원작 혹은 영어번역 표제를 지닌 도서만을 선별하였다. 먼저, PBPL_9472 데이터셋의 도서 ISBN(N=9,472) 가운데 KDC 주제와 단일 장르/포맷 정보를 모두 지닌 도서를 파악하였다. 장르/포맷 정보는 심지영(2022a)의 연구에서 서점 주제명 분석을 통해 각 도서에 나타난 장르/포맷 정보를 LC Genre/Form Terms(이하 LCGFT)를 기반으로 전거제어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LCGFT의 최상위 분류항목(정보적 자료(informational works), 교육적 자료(instructional and educational works), 시각적 자료(visual works), 오락적 자료(recreational works), 창작 논픽션(creative nonfiction), 문학(literature), 음악(music), 종교자료(religious material)) 정보만을 사용하였고, 두 개 이상의 복합장르/포맷을 지닌 도서는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KDC 주제와 단일 장르/포맷 정보를 지닌 총 3,570건의 도서 ISBN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영어 원작 혹은 영어번역 표제가 있는 도서를 식별하기 위해서, 총 3,570건의 도서 ISBN을 질의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주기사항 필드로부터 영어 원작(예,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의 원표제와 영어번역 표

제(예, 영어번역 표제) 유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총 473건의 영어 원작 혹은 영어 표제가 있는 도서를 식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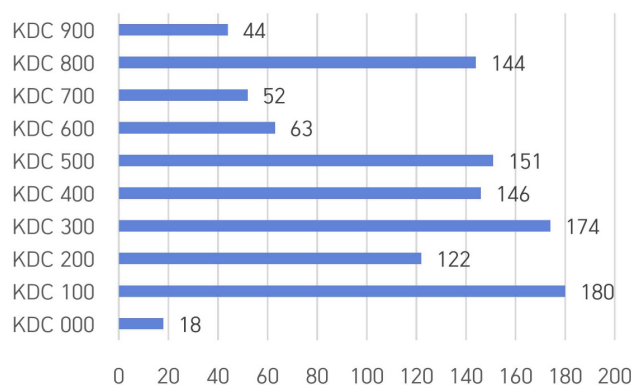
영어 원작 혹은 영어번역 표제를 지닌 도서 473건에 대한 리뷰 데이터 수집은 국내 서점 3개(A, K, Y)와 해외 서점 1개(AZ 서점)로부터 이루어졌다. 국내 서점의 경우 도서 ISBN으로 검색하여 국내 리뷰를 수집하였으며, 해외 서점의 경우는 영어 표제로 검색하여 영미권 리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을 위한 리뷰 데이터 수집은 도서 ISBN을 기준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추천/공감(예, 추천수, 공감수, ○ people found this helpful)을 받은 리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천/공감을 기준으로 국내 리뷰와 영미권 리뷰 각각 상위 리뷰 3개씩 선정하여 추출하였다. 한편,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ISBN은 다르지만, 도서의 내용은 동일한 경우(예, 동일 도서의 개정판), 동일 도서지만 분권과 통합본으로 나뉜 경우(예, 국내서는 분권, 해외서는 통합본)는 중복으로 간주하여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단, 도서의 내용이 동일해도 판형이 다른 경우(예, 문고판)는 판형이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중복되는 도서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리뷰 가운데 중복 리뷰(동일 이용자가 복수 개 서점에 동일 리뷰를 게시한 경우)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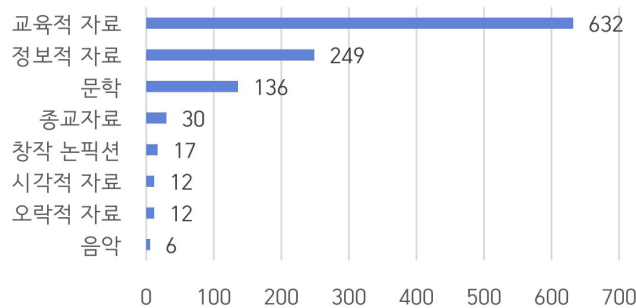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도서 187건에 대해 국내 리뷰 533건, 해외 리뷰 561건으로 이루어진 총 1,094건의 도서 리뷰 샘플을 구성하였다. 도서의 검색 및 리뷰 데이터 수집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최종 구성된 도서 리뷰 샘플(N=1,094) 텍스트의 평균 길이(단어 기준)는 국내 리뷰 474.6, 해외 리뷰 411.8이며, 도서 리뷰 샘플의 주제와 장르/포맷 분포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주제는 KDC에 의해 구분되며, 장르/포맷 정보는 LCGFT(Library of Congress, 2022)의 최상위 분류항목에 기반한다.

3.2 도서 리뷰 내용분석

도서 리뷰 샘플(N=1,094)에 대한 내용분석



<그림 1> 도서 리뷰 샘플의 주제 구성(N=1,094)



〈그림 2〉 도서 리뷰 샘플의 장르/포맷 구성(N=1,094)

은 도서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고려하는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방 코딩(open cod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의미 단위로 하였으며, 1) 도서를 이용하게 된 계기(예, 독서모임에서 소개, 영화 소재로부터 흥미, 원작에 대한 호기심,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저자 등), 2) 도서이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예, 가족의 질병, 본인의 심리적 문제, 업무에서 부족함 자각, 외국어 학습, 사회적 위기 인식 등), 3) 도서에 대한 개인적 흥미/관심 요소(예, 타인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원리 이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등)와 관련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개념 코드를 부여하였다.

기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 도서 리뷰 분석과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연구가 주로 도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도서 이용자의 선호요인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점에서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내면적 요인(예, 도서이용을 유발하는 호기심 등)과 외면적 요인(예, 지인 혹은 전문가의 영향 등) 관련 요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리뷰의 맥락상 이용자가 도서 선택

및 이용에 대해 주목하는 관점이 드러난 경우 해당 개념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도서 리뷰에서 “cnn뉴스인가를 듣다가.. 이 책이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듣고 원서로 주문해서 5월 중순에 읽었습니다.”의 경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 것이 ‘미디어 소개’와 ‘화제가 된’ 것과 관련된다고 해석하여 개념 코드를 부여하였다. 또한, 위 예시와 같이 하나의 quotation에 두 개 이상의 개념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코딩 체계 수립 과정에서는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연구(심지영, 2022b; 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 Wyatt, 2007)에 기반하여 독자와 창작자/배포자,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식별하여 구조화하였다. 또한, 도서와 관련하여 도서 전반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속성과 소설과 비소설에서 주로 드러나는 특성을 구분하여 어필 요소를 체계화하였다. 한편, 도서 리뷰를 대상으로 개념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AZ 서점에서 도서 리뷰와 함께 제공하는 mention(도서 리뷰에서 언급된 단어 혹은 구) 정보(예, thought-provoking, well-researched)도 참고하였다.

도서 리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회 분석 결과 도출된 개념 코드 총 113개를 대상으로 제2코더를 통한 코더 간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더 간 검증은 각 코드에 대해 평균 3.1개의 코드가 출현하도록 랜덤하게 구성된 143개의 quotation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홀스티 공식(Holsti, 1969, 137)을 사용한 코더 간 일치도는 92.0%로 나타났다으며, 코더 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104개의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체계화하였다. 한편,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된 각 어필 요소가 도서 주제 혹은 장르/포맷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KDC 주제×어필 요소', '장르/포맷×어필 요소'의 형태로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대응일치분석은 행과 열의 빈도 분포표를 2차원 공간으로 축소하여 변수 간의 상관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 혹은 장르/포맷과 대응하여 어필 요소들의 상관성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다. 대응일치분석에서는 대응일치맵의 데이터 정보 표현이 잘 된 것으로 간주되는 2개 차원 설명력을 합한 값이 최소 80% 이상 되는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독자 어필 요소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연구에서 독자 관련 요소는 소설 어필 요소(Saricks, 2005)와 비소설 어필 요소 연구(Alpert, 2006; Wyatt, 2007)에서는 포함되지 않다가, Dali(2014)와 심지영

(2022b)의 연구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요소다. 본 연구에서 독자 관점에 대응된다고 해석한 독자 어필 요소는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내면적 요인과 외면적 요인”(변우열, 2015, 196-198)에 기반한다. 내면적 요인은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독자의 내면적 요구와 관련되며,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선행연구(〈표 1〉 참고)에서 ‘호기심’, ‘개인적 상황/요구/기분’, ‘지식/경험 습득’, ‘정보적 가치/유용성’으로 대변된다. 외면적 요인은 독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친구/전문가의 추천’, ‘도서에 대한 정보량’, ‘도서/저자/시리즈의 인기’, ‘입수 가능성/접근의 용이성’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도서 리뷰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화한 독자 어필 요소는 독자의 관점에서 도서의 선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로, 독자의 도서에 대한 ‘호기심’이 어떤 정보 자극에서 비롯되는지, 도서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요구’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는지와 관련된 요소로 구분하였다(〈표 2〉, 〈표 6〉 참고). Dali(2014)의 연구에서 독자 어필 요소로 제시되었던 ‘호기심’과 ‘친구/전문가 추천’, ‘도서/저자/시리즈의 인기’가 동일 범주의 개념이었던 데 반해(〈표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추천(전문가/전문기관 추천, 지인/친구 추천, 유명인 추천, 독자 리뷰)과 인기(화제가 된/호평받은) 관련 어필 요소들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행요인인 정보 자극으로 해석하여 ‘호기심’의 범주 아래 구분하였다(〈표 6〉 참고). 이는 독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호기심을 “관련 정보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적 호기심”(Berlyne, 1954, 189)으로 해석한 결과다. 또한, 선행연구(심지영, 2022b; Alpert, 2006; Wyatt, 2007)에서 도서 관점의

〈표 2〉 독자 어필 요소

호기심	합계(비율)	상황/요구	합계(비율)
저자의 전작	133(23.0%)	지식/상식/교양 증대	206(11.5%)
주제/소재 관련 경험	99(17.1%)	방법/노하우/해법	130(7.2%)
선호 주제/소재/장르	72(12.4%)	재미/즐거움	106(5.9%)
도서 제목	43(7.4%)	삶의 개선	96(5.3%)
선호 저자	36(6.2%)	특정 주제 이해	96(5.3%)
광고/책의 문구	28(4.8%)	심리/행동 이해	82(4.6%)
미디어 소개/리뷰	26(4.5%)	새로운 시각	81(4.5%)
전문가/전문기관 추천	26(4.5%)	생각 자극	72(4.0%)
화제가 된/호평받은	24(4.1%)	현실 이해	70(3.9%)
저자 관련 콘텐츠	23(4.0%)	사상/가치 이해	67(3.7%)
지인/친구 추천	18(3.1%)	지혜/조언	64(3.6%)
지적 호기심	16(2.8%)	행동양식 개선	60(3.3%)
독자 리뷰	10(1.7%)	지적 자극	58(3.2%)
유명인 추천	9(1.6%)	사물/현상의 원리 이해	56(3.1%)
원작 소재 콘텐츠	8(1.4%)	입문	50(2.8%)
인상적인 표지	8(1.4%)	매뉴얼/가이드	49(2.7%)
합계(비율)	579(100%)	개념 이해	48(2.7%)
		커리어	47(2.6%)
		성찰	46(2.6%)
		사회적 관심사	45(2.5%)
		역사 이해	43(2.4%)
		자기개발	40(2.2%)
		미래 예측	34(1.9%)
		배경정보	33(1.8%)
		교훈/가르침	28(1.6%)
		레퍼런스	28(1.6%)
		사회 변화 이해	25(1.4%)
		정서적 지지	22(1.2%)
		시대 상황 이해	17(0.9%)
		합계(비율)	1,799(100.0%)

어필 요소로 분류되었던 ‘지식/경험 습득’ 요소는 지식/경험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고 보고 독자의 관점, 특히, 도서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요구’의 범주 아래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도서 리뷰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독자의 호기심 관련 어필 요소는 다양한 정보 자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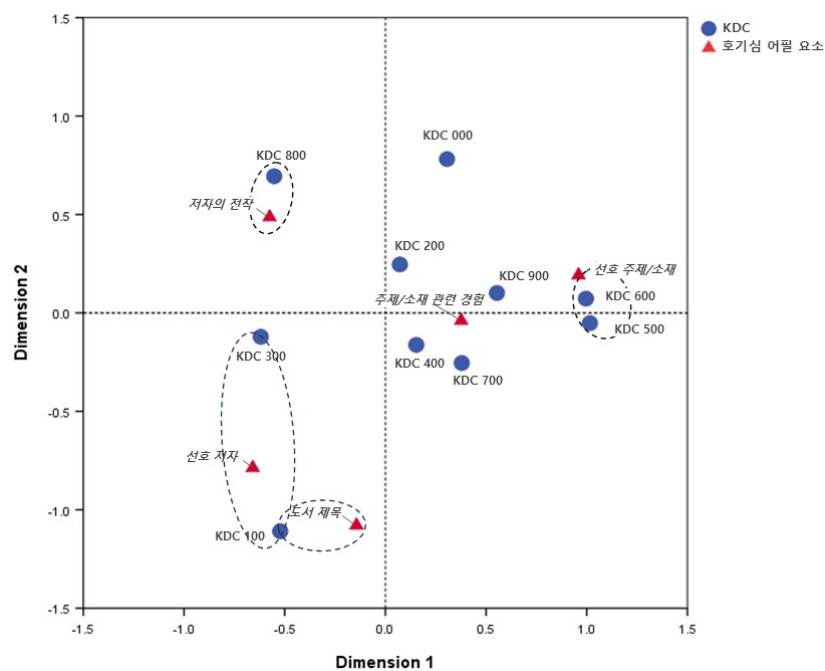
참고). 특히, 독자의 도서이용을 유발하는 호기심 관련 정보 자극은 저자 관련 요소(저자의 전작, 선호 저자, 저자 관련 콘텐츠)가 두드러졌다. 예컨대, ‘저자의 전작’이나 ‘선호 저자’로 인해 도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저자 관련 콘텐츠’(예, 웹 기반 콘텐츠(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 온·오프라인 강연(강연회, TED 강연), 연구논문 등)로

인해 도서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호기심 관련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대상으로 도서 주제(KDC)와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한 결과(〈그림 3〉 참고), 이미 경험한 저자의 작품이 차후 해당 저자의 도서이용으로 이끄는 경우(‘저자의 전작’)가 문학(800) 분야 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자의 전작’ 요소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저자의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해당

작품에서 경험한 저자의 자질에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특정 저자의 작품 경험이 도서이용과 연관되는 경우로 특징된다.

“Bobby’s attorney for his defense is Eddie Flynn, a fellow that I’ve seen before in other novels by Cavanagh. Flynn has a checkered history (P168: GF-LT007_KDC800_no876.txt - 168:31¹⁾).”



〈그림 3〉 도서 주제(KDC)와 대응되는 독자의 호기심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매에 표현된 호기심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호기심 관련 어필 요소 총 16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81.9%(1차원 설명력 52.0%, 2차원 설명력 29.9%)로 나타남

1) P168: GF-LT007_KDC800_no876.txt - 168:31은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 결과 quotation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장르/포맷 정보(예, GF-LT(문학), IW(정보적 자료), IE(교육적 자료), VW(시각적 자료), CN(창작 논픽션), RW(오락적 자료), MU(음악), RM(종교자료))와 KDC 주제(KDC800)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이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딘가 끌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작품들도 읽어볼 의향이 생겼다. 필력이 참 맘에 든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서 작가의 센스가 돋보인다 (P167: GF-LT006_KDC800_no703.txt - 167:5).”

한편, ‘선호 저자’로 인해 해당 도서이용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는 철학(100)과 사회과학(300) 분야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 이 경우, 저자의 전작보다는 저자의 사상/관점, 활동에 더 관심을 나타낸 경우로 다음의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저자의 관점에 주목하거나,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저자의 활동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 경우들로 나타났다.

“There’s a reason Dr. Peck is one of my favorite authors, and this book once more demonstrates why. Denial of the Soul is a brave and important book that carefully and objectively explores the entire issue of euthanasia from both a medical and spiritual standpoint (P8: GF-IE005_KDC100_no7113.txt-8:9).”

“I am a Tim Ferriss apologist. I’ve listened to almost every episode of his podcast. Own his books. Have been following him since 4 Hour Work Week came out. Tim’s podcast has rewired my brain (P49: GF-IE046_KDC300_no141.txt - 49:15).”

호기심 어필 요소 중 ‘도서 제목’ 요소는 아래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제목으로부터 해당 도

서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하게 된 경우로 주로 철학(100) 분야와 대응되어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도서 정보 관련 요소로 ‘광고/책의 문구’ 요소가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예시와 같이 도서와 관련된 광고 혹은 책 커버의 짧은 광고 문구를 통해 직관적으로 도서를 인식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책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그리고 보니 나는 저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나답다는 게 무언지 궁금하다...’ 등등... (P23: GF-IE020_KDC100_no1887.txt - 23:5).”

“I came across the ad for this book while riding the train and it got me intrigued. (P21: GF-IE018_KDC100_no1839.txt - 21:21).”

“‘스틸니스’란 무엇일까. 책날개의 첫 문장을 통해 이 책의 필요성을 어필한다 (P9: GF-IE006_KDC100_no4804.txt - 9:3).”

‘선호 주제/소재/장르’로 인한 호기심은 기술과학(500)과 예술(600) 분야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난 반면, 도서의 ‘주제/소재 관련 경험’ 요소는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대응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독자는 도서의 주제 혹은 소재와 관련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다양한 경험(예, 지인과의 건강식 관련 대화, 병상에 있는 가족, 인류학 전공 경험, 과학 주제독서 경험)과 관련하여 도서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며칠 전, 요즘 현미로 밥을 해서 먹고 있다는

내게 지인 왈, “현미가 좋은 게 아니라던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기사를 하나 보여줬다. 호기심과 억울함(?)에 뭐라 말하고 있나 싶어 책을 펼쳤다 (P152: GF-IW033_KDC500_no2486.txt-152:3).”

“지난 주말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엄마를 뵈고 왔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살이 내린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중략) 엄마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의 이런 마음과 비슷한 책을 만났다 (P181: GF-LT020_KDC800_no1743.txt -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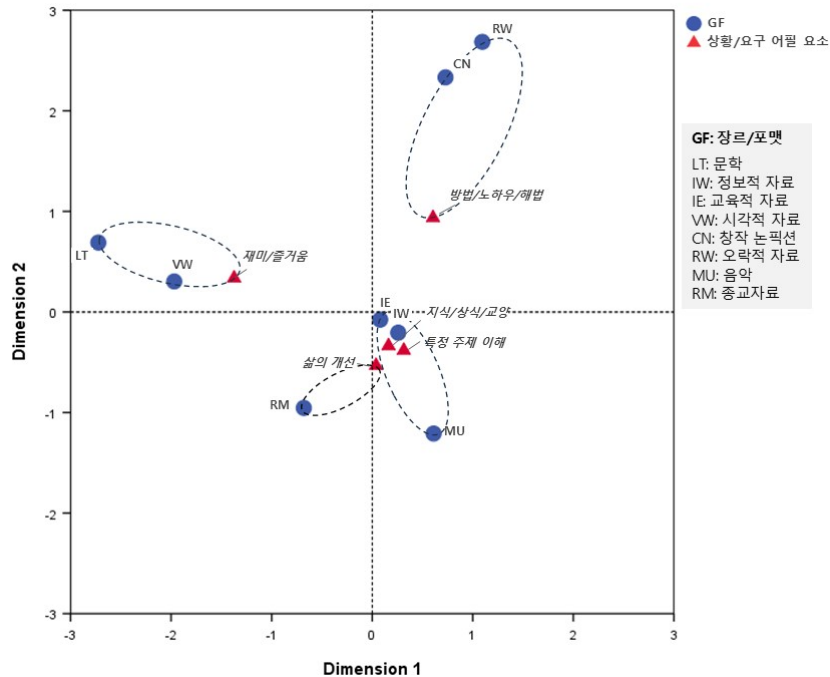
“I have a master’s degree in anthropology, so Gladwell’s own description of Talking to Strangers spoke to me immediately (P54: GF-IE051_KDC300_no1692.txt-54:12).”

“얼마 전 <위험한 과학책>을 읽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많아지게 되었는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상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잔 속 물리학>을 접어들면서 두려움이 조금 있었다 (P70: GF-IE067_KDC400_no3217.txt - 70:5).”

한편, 본 연구에서 식별한 독자의 ‘상황/요구’ 어필 요소는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심지영, 2022b; Alpert, 2006; Wyatt, 2007)의 ‘지식/경험 습득’ 어필 요소에 대응되는 형태로, 독자의 지식 혹은 경험 관련 요구를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표 2>, <표 6> 참고). 기본적으로 독자는 도서이용을 통해 기존에 알

지 못했던 내용이나 막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지식정보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지식/상식/교양 증대’)에 주목하는 한편, 독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관련한 이해(‘특정 주제 이해’, ‘심리/행동 이해’, ‘현실 이해’, ‘사상/가치 이해’, ‘사물/현상의 원리 이해’, ‘개념 이해’, ‘역사 이해’, ‘사회 변화 이해’, ‘시대 상황 이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 혹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방법/노하우/해법’, ‘삶의 개선’, ‘행동양식 개선’) 측면에서 도서이용 요구를 드러냈다. 또한, 학습 및 정보 도구(‘입문’, ‘매뉴얼/가이드’, ‘배경정보’, ‘레퍼런스’), 커리어 및 자기개발(‘커리어’, ‘자기개발’), 사회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원(‘사회적 관심사’, ‘미래 예측’)과 관련하여 도서이용 상황 및 요구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지식 혹은 경험 습득과 관련된 다양한 어필 요소 이외에도 감정적 요구(‘재미/즐거움’, ‘정서적 지지’), 지적 사고 활동 관련 요구(‘새로운 시각’, ‘생각 자극’, ‘지적 자극’), 내면적 성숙을 위한 요구(‘지혜/조언’, ‘성찰’, ‘교훈/가르침’) 관련 어필 요소들이 독자 어필 요소로 새롭게 파악되었다.

‘상황/요구’ 어필 요소는 <그림 4>와 같이 도서의 장르 혹은 포맷에 따라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어필 요소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재미/즐거움’ 요소는 문학(LT)과 그림책 등으로 대표되는 시각적 자료(VW)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으며, ‘삶의 개선’ 요소는 종교자료(RM)에서, ‘지식/상식/교양 증대’와 ‘특정 주제 이해’ 요소는 정보적 자료(IW), 교육적 자료(IE), 음악(MU)에서, ‘방법/노하우/해법’ 요소는 퍼즐 등의 오락적 자료(RW)와 경험담을 기반으로 하는 에세이 등의 창작 논픽션(CN)과 주로 대



〈그림 4〉 장르/포맷과 대응되는 독자의 상황/요구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맵에 표현된 상황/요구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상황/요구 관련 어필 요소 총 29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84.7%(1차원 설명력 55.4%, 2차원 설명력 29.3%)로 나타남

응되는 특징을 보였다.

4.2 저자 어필 요소

저자 관련 요소는 독자 요소와 마찬가지로 소설과 비소설을 중심으로 한 초기 어필 요소 체계 (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요소로, Dali(2014)와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요소다. Dali(2014)는 ‘저자’ 요소를 도서 자체의 속성으로 해석하며 도서의 다양한 어필 요소 중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나, 심지영(2022b)은 도서 콘텐츠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외

부 영향 요소로 해석하였다. 실제로, ‘저자’ 요소는 이용자 도서탐색과 인터뷰 데이터를 내용 분석한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 도서이용의 외부 영향 요소 중 가장 다양한 하위 속성(예, 이력, 전문성 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상희(2009)의 연구에서도 저자는 성인 독자에게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며, 성인 독자의 도서 선택에서 저자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영국 공공도서관 조사결과가 인용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 관련 개념도 주목하였으나, 출판사의 경우 출간도서의 주제 관련 개념 1건만 드러나서 어필 요소 체계화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서 리뷰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된 저자 어필 요소는 도서의 창작자 관점에서 도서의 선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저자의 이력, 자질, 평판의 관점에서 하위 어필 요소를 체계화하였다(〈표 3〉, 〈표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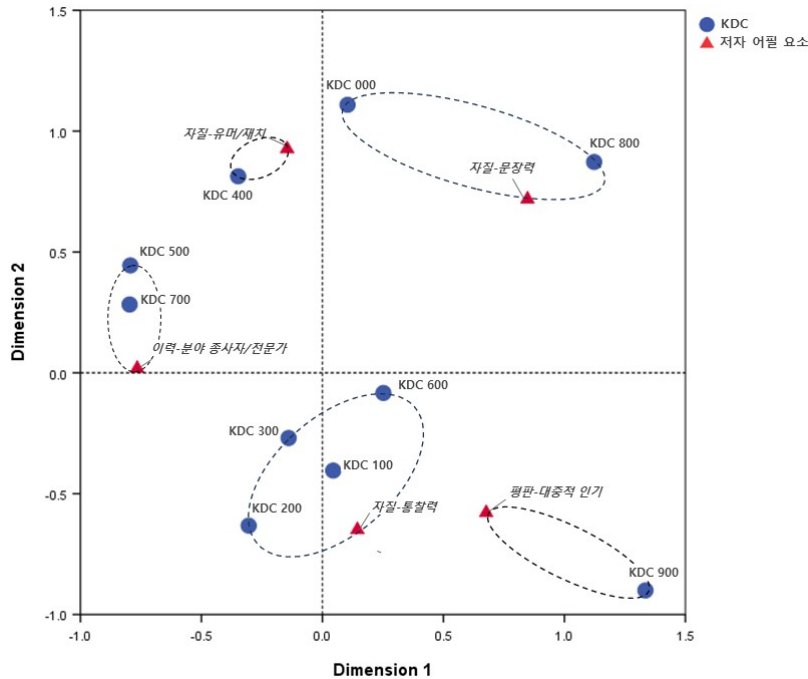
먼저 저자의 이력과 관련해서는 ‘분야 종사자/전문가’, ‘저널리스트’, ‘수상’ 관련 어필 요소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분야 종사자/전문가’는 주로 기술과학(500), 언어(700)와 같은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독자가 고려하는 요소로 드러났다(〈그림 5〉 참고). 또한, 분야 종사자와 더불어 저자의 권위와 관련되는 요소로 ‘수상’ 이력이 도서 선택 및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저널리스트’ 이력은 아래 예시와 같이 주로 전문 분야 내용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요소로 독자가 고려하고 있었다.

“The Spiritual Brain: A Neuroscientist’s Case for the Existence of the Soul was written by a well qualified PhD level neuroscientist at the University of Montreal who attempts by use of laboratory experimental research to evaluate the claims of the nonmaterialist account of the living world. The coauthor is a journalist, insuring that the book is readable and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P38: GF-IE035_KDC200_no7958.txt - 38:6).”

“빌 브라이슨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략) 저널리스트에다 대학 총장의 경험을 가진 저자가 그만의 특유한 문체로 신체의 특징들을 재미있게 설명한 이 책은 정말 빌 브라이슨판 ‘우리 몸 안내서’라 부를 만하다 (P86: GF-IE083_KDC500_no2200.txt - 86:6).”

〈표 3〉 저자 어필 요소

저자	합계(비율)
이력-분야 종사자/전문가	102(21.3%)
자질-통찰력	67(14.0%)
자질-문장력	50(10.5%)
평판-대중적 인기	46(9.6%)
자질-유머/재치	35(7.3%)
자질-지성	31(6.5%)
평판-장르/분야 권위자	30(6.3%)
이력-저널리스트	29(6.1%)
자질-호소력	23(4.8%)
자질-문학적 표현 능력	17(3.6%)
이력-수상	14(2.9%)
자질-주제의식	13(2.7%)
평판-호평	12(2.5%)
자질-스토리텔링	9(1.9%)
합계(비율)	478(100.0%)



〈그림 5〉 도서 주제(KDC)와 대응되는 저자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맵에 표현된 저자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저자 어필 요소 총 14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88.5%(1차원 설명력 52.0%, 2차원 설명력 36.5%)로 나타남

다음으로 저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통찰력’, ‘문장력’, ‘유머/재치’, ‘지성’, ‘호소력’, ‘문학적 표현 능력’, ‘주제의식’, ‘스토리텔링’ 요소가 드러났다.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통찰력’의 경우 KDC 주제 분야 중 철학(100), 종교(200), 사회과학(300), 예술(600) 분야의 도서와 관련한 저자의 자질로 주로 언급되었으며, ‘문장력’은 문학(800)과 총류(000) 분야에서 주요한 자질로 나타났다. ‘유머/재치’ 자질의 경우 자연과학(400) 주제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는데, 자연과학 분야 도서이용에서 ‘유머/재치’는 아래 예시와 같이 어려운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자질로써 주목하고 있었다.

“호킹은 쉽고 명쾌하게 과거부터 최근의 과학적 성취까지 보여줍니다. 그는 대중적인 글을 쓰는 탁월한 작가입니다.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를 읽고도 느꼈습니다만, 호킹은 최고의 작가입니다. 간결하고 또 우아하게 글을 씁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합니다. 어려운 개념도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고 설명합니다. 그의 명료한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의 해답과 마주하게 됩니다 (P66: GF-IE063_KDC400_no5684.txt - 66:10).”

마지막으로 저자의 평판과 관련해서는 ‘대중적 인기’, ‘장르/분야 권위자’, ‘호평’ 요소가 나

타났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대표되는 ‘대중적 인기’ 요소는 저자의 인기도만을 반영한 것이라면, ‘장르/분야 권위자’는 저자의 이력 중 ‘분야 종사자/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권위와 관련된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장르/분야 권위자’는 ‘분야 종사자/전문가’ 개념에 세간의 인정이 더해진 개념이다. ‘호평’의 경우, 언론매체, 미디어, 대중으로부터의 호평받은 저자가 독자의 도서이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드러났다.

4.3 도서 어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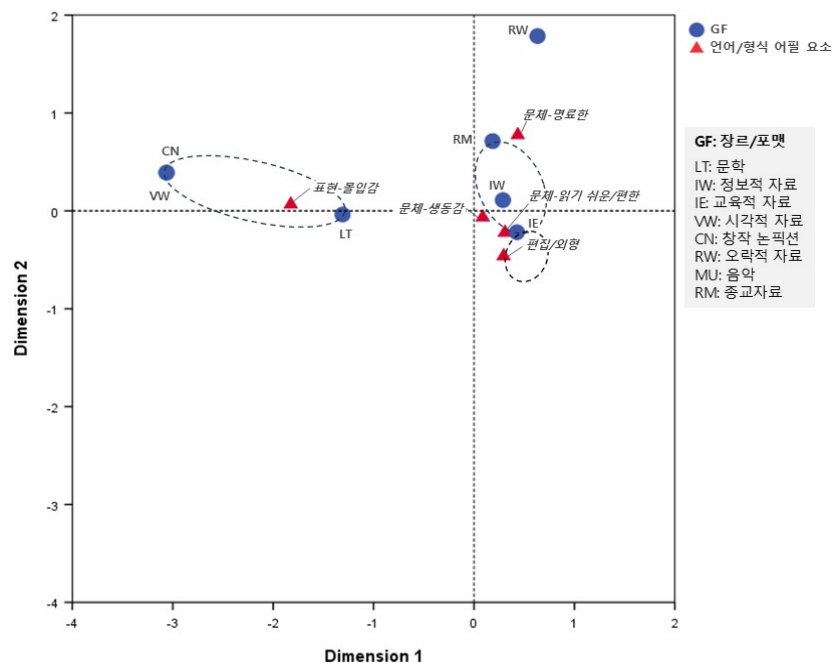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도서 리뷰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된 도서 어필 요소는 도서의 주제, 장르, 형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도서 일반 어필 요소와 소설과 비소설에서 드러나는 어필 요소로 구분된다. 도서 일반 어필 요소는 <표 4>, <표 6>과 같이 언어/형식 측면과 주제/소재 측면으로 나타났다.

언어/형식 어필 요소에서 언어적 요소는 모든 도서 관련 어필 요소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언어 요소 가운데 문체(Alpert, 2006; Dali, 2014; Saricks, 2005)와 표현(Dali, 2014)으로 구분하여 언어 요소를 체계화하였다. 문체 요소와 관련한 속성으로는 ‘읽기 쉬운/편한’, ‘명료한’, ‘생동감 있는’, ‘꾸밈없고 진솔한’, ‘정중한’, ‘매력적인’의 형태로 나타났다으며, 표현 요소와 관련한 속성은 ‘몰입감’, ‘번역의 질’, ‘균형감’으로 나타났다. 형식 관련 어필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자료 유형’(심지영, 2022b; Dali, 2014; Wyatt, 2007)과 더불어 ‘편집/외형’, ‘휴대성’, ‘자료의 분량’ 속성을 추가로 식별하였다.

한편, 언어/형식 관련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대상으로 도서의 장르/포맷 속성과 대응일치분석을 한 결과(<그림 6> 참고), 각 장르/포맷별로 두드러진 어필 요소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문학(LT) 장르와 창작 논픽션(CN), 시각적

<표 4> 도서 일반 어필 요소

언어/형식	합계(비율)	주제/소재	합계(비율)
문체-읽기 쉬운/편한	115(39.0%)	사회문제	92(22.4%)
문체-명료한	48(16.3%)	삶/인생	71(17.3%)
표현-몰입감	36(12.2%)	건강	48(11.7%)
형식-편집/외형	29(9.8%)	인물	42(10.2%)
문체-생동감 있는	11(3.7%)	양육/자녀교육	31(7.5%)
표현-번역의 질	10(3.4%)	대인 커뮤니케이션	30(7.3%)
형식-자료 유형	10(3.4%)	외국어	21(5.1%)
문체-꾸밈없고 진솔한	8(2.7%)	직장 생활	21(5.1%)
문체-정중한	8(2.7%)	취미/여가	19(4.6%)
형식-휴대성	6(2.0%)	문화/사회제도	17(4.1%)
문체-매력적인	5(1.7%)	인간성	10(2.4%)
형식-자료의 분량	5(1.7%)	주거/인테리어	9(2.2%)
표현-균형감	4(1.4%)	합계(비율)	411(100.0%)
합계(비율)	295(100.0%)		



〈그림 6〉 장르/포맷과 대응되는 도서의 언어/형식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법에 표현된 언어/형식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언어/형식 관련 어필 요소 총 13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96.2%(1차원 설명력 88.9%, 2차원 설명력 7.3%)로 나타남

자료(VW)와 관련해서는 ‘몰입감’을 주는 표현이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으며, 정보적 자료(IW), 교육적 자료(IE), 종교자료(RM)는 ‘읽기 쉬운/편한’ 문체가 주로 어필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육적 자료(IE)는 자료의 형식적 측면에서 ‘편집/외형’이 주요한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

Alpert(2006), Wyatt(2007),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 주제 어필 요소로 제시되었던 주제/소재 어필 요소는 본 연구에서 독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정보요구를 지니는 주제/소재의 관점에서 세분화된 어필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독자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소재(‘사회문제’, ‘문화/사회제도’),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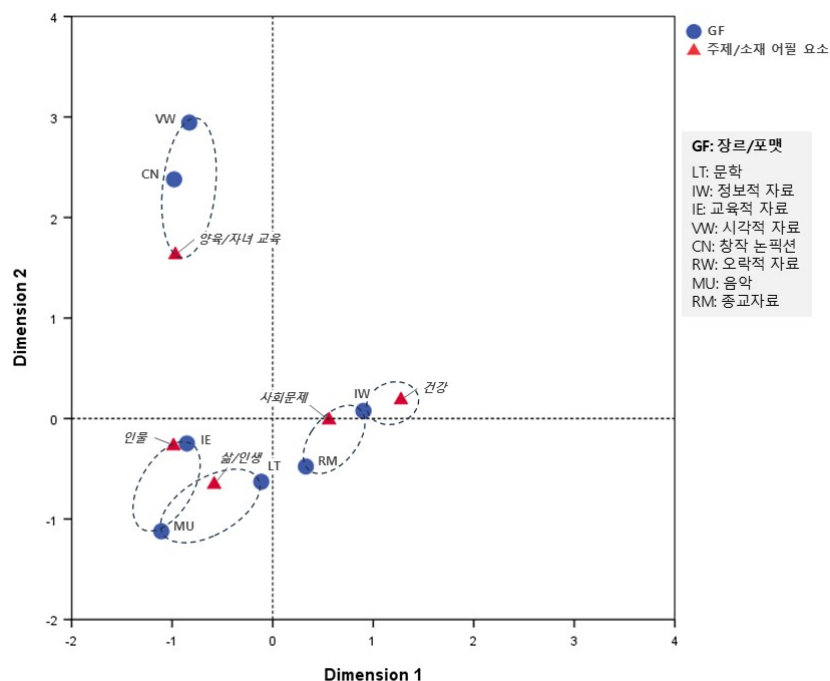
의 목적, 방식,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 등의 인간 관련 주제/소재(‘삶/인생’, ‘인물’, ‘인간성’), 인간의 생활양식과 관련한 실용적인 주제/소재(‘건강’, ‘양육/자녀교육’, ‘대인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직장 생활’, ‘취미/여가’, ‘주거/인테리어’)가 주제/소재 관련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

주제/소재 어필 요소 가운데 ‘삶/인생’은 주로 문학(LT), 음악(MU) 자료와 대응되어 나타났으며, 역사적 인물이 주를 이뤘던 ‘인물’의 경우 교육적 자료(IE)와 음악(MU) 자료에서 주로 나타났다. ‘양육/자녀교육’은 그림책으로 대변되는 시각적 자료(VW)와 경험담 위주의 에세이 등이 포함된 창작 논픽션(CN)과 대응

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또한, '건강' 주제/소재는 정보적 자료(IW)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그림 7〉 참고).

소설과 비소설 어필 요소는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소설 관련 '캐릭터'와 '스토리', 비소설 관련 '내러티브 맥락', '기술/설명의 세부 내용', '연구조사의 깊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표 5〉, 〈표 6〉 참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특히 독자들이 비소설 도서이용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다양한 맥락의 요소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도서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조사된 것인지('연구/조사 기반', '근거 기반'), 이야기 서술

의 맥락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내러티브 맥락-경험 기반', '내러티브 맥락-철학적 사고 기반'), 정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예시/사례 제공', '일화 제공', '도표/차트 제공', '삽화 수록', '사진 수록'), 도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부가정보를 제공하는지('연습 도구 제공', '목록/색인/요약', '부가 콘텐츠 제공'), 정보의 수준은 어떠한지('정보의 수준-독자 수준', '정보의 수준-정보원의 권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는지('짜임새 있는 구성'), 도서 내용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이론/관점 제공')가 비소설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



〈그림 7〉 장르/포맷과 대응되는 도서의 주제/소재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맵에 표현된 주제/소재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주제/소재 관련 어필 요소 총 12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90.6%(1차원 설명력 67.5%, 2차원 설명력 23.1%)로 나타남

〈표 5〉 소설*과 비소설 어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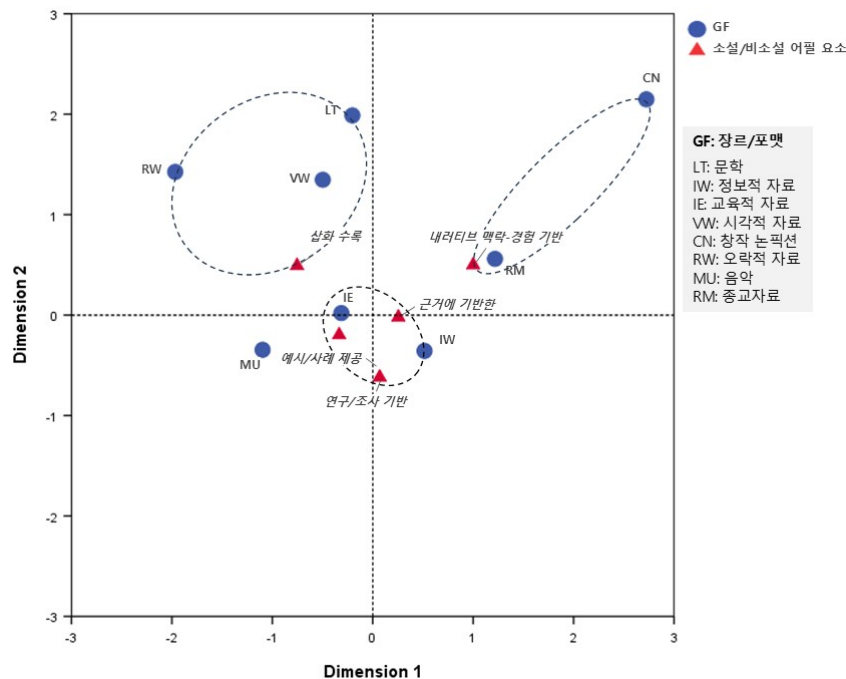
소설/비소설	합계(비율)
연구/조사 기반	96(12.9%)
근거에 기반	92(12.3%)
삽화 수록*	91(12.2%)
예시/사례 제공	82(11.0%)
내러티브 맥락-경험 기반	66(8.8%)
짜임새 있는 구성	41(5.5%)
내러티브 맥락-철학적 사고 기반	39(5.2%)
정보의 수준-독자 수준	33(4.4%)
캐릭터*	29(3.9%)
부가정보-연습 도구 제공	27(3.6%)
사진 수록	26(3.5%)
이론/관점 제공	26(3.5%)
스토리-흥미진진/궁금증 유발*	26(3.5%)
부가정보-목록/색인/요약	15(2.0%)
일화 제공	15(2.0%)
부가정보-부가 콘텐츠 제공	13(1.7%)
스토리-현실감 있는*	12(1.6%)
스토리-반전*	11(1.5%)
도표/차트 제공	4(0.5%)
정보의 수준-정보원의 권위	3(0.4%)
합계(비율)	747(100.0%)

* 본표는 소설 어필 요소와 비소설 어필 요소로 구성되며, 소설 어필 요소에는 별표(*)로 표시함. 단, 삽화 수록은 소설과 비소설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요소임

소설 어필 요소는 Saricks(2005), Wyatt(2007),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릭터’와 ‘스토리’ 요소가 드러났으며, 특히 ‘스토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세분화된 요소(‘흥미진진/궁금증 유발’, ‘현실감 있는’, ‘반전’)가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 또한, 비소설 어필 요소와 마찬가지로 내용기술의 측면에서 ‘삽화 수록’이라는 요소가 새롭게 식별되었다. ‘삽화 수록’ 요소는 〈그림 8〉과 같이 소설, 그림책 등이 각각 포함된 문학(LT)과 시각적 자료(VW)에 대응되어 나타나는 동시에 퍼즐, 게임 등의 비소설 장르로 구성된 오락적 자료(RW)에도 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

한편, 비소설 어필 요소 가운데 이야기 서술의 맥락이 작가의 경험 혹은 실존 인물의 경험에 기반한 데서 비롯된 어필 요소(‘내러티브 맥락-경험 기반’)가 창작 논픽션(CN)과 종교자료(RM)와 주로 대응되어 드러났다(〈그림 8〉참고). 예를 들면, 아래 예시와 같이 자전적 회고록에서 드러난 저자의 트라우마 경험과 대처 모습으로부터 독자의 감정적 반응(카타르시스)이 일어나는 형태다.

“This memoir reads as a practice in pure catharsis an attempt at validating her own traumas and seeing how it latched onto her



〈그림 8〉 장르/포맷과 대응되는 도서의 소설/비소설 어필 요소*

* 본 대응일치법에 표현된 소설/비소설 어필 요소는 도서 리뷰(N=1,094)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식별된 소설과 비소설 어필 요소 총 20개 중 상위 5개 어필 요소를 의미하며, 두 좌표의 누적 설명력은 92.6%(1차원 설명력 68.8%, 2차원 설명력 23.8%)로 나타남

and changed her perception of herself. It's not about the reader and really whatever they're hoping to get out of it: Roxane is showing us the very experiences that closely reflect those similar to her (P 1: GF-CN001_KDC300_no2954.txt - 1:11)."

또한, 교육적 자료(IE)와 정보적 자료(IW)와 주로 대응되어 나타난 비소설 어필 요소는 사실적 데이터, 고증 등에 기반하여 내용을 전개하거나('근거에 기반'), 과학적 혹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서술하거나('연구/조사에 기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를 포함('예시/사례 제공')하는 내용을 어필 요소로 드러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자료에서 독자가 주로 고려하는 속성을 보여주었다.

4.4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서 리뷰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한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독자, 저자, 도서의 관점에서 각 어필 요소가 지니는 속성으로 구분하였다(〈표 6〉 참고). 본 연구의 독자 어필 요소는 독자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내면적 요인, 외면적 요인"(변우열, 2015, 196-198)에 기반하여 식별하였으며, "관련 정보 자극에 의해

〈표 6〉 도서 관련 어필 요소

범주/속성			어필 요소
독자	호기심	저자 관련	저자의 전작, 선호 저자, 저자 관련 콘텐츠
		독자의 경험	주제/소재 관련 경험
		독자의 선호	선호 주제/소재/장르
		도서 정보	광고/책의 문구, 미디어 소개/리뷰, 도서 제목, 원작 소재 콘텐츠, 인상적인 표지
		추천	전문가/전문기관 추천, 지인/친구 추천, 유명인 추천, 독자 리뷰
		인기	화제가 된/호평받은
		기타	지적 호기심
	상황/요구	지식/정보 충족	지식/상식/교양 증대
		세상만사/만물에 대한 이해	특정 주제 이해, 심리/행동 이해, 현실 이해, 사상/가치 이해, 사물/현상의 원리 이해, 개념 이해, 역사 이해, 사회 변화 이해, 시대 상황 이해
		일상생활의 문제/과제 해결	방법/노하우/해법, 삶의 개선, 행동양식 개선
		학습 및 정보 도구	입문, 매뉴얼/가이드, 배경정보, 레퍼런스
		커리어/자기개발	커리어, 자기개발
		사회 트렌드 파악	사회적 관심사, 미래 예측
		감정적 요구	재미/즐거움, 정서적 지지
		지적 사고 활동	새로운 시각, 생각 자극, 지적 자극
내면적 성숙	지혜/조언, 성찰, 교훈/가르침		
저자	이력	학업/직업/경험	분야 종사자/전문가, 저널리스트, 수상
	자질	사고/글쓰기 능력	통찰력, 문장력, 유머/재치, 지성, 호소력, 문학적 표현 능력, 주제의식, 스토리텔링
	평판	세간의 평가	대중적 인기, 장르/분야 권위자, 호평
일반	언어/형식	문체	읽기 쉬운/편한, 명료한, 생동감 있는, 꾸밈없고 진솔한, 정중한, 매력적인
		표현	몰입감, 번역의 질, 균형감
		형식	편집/외형, 자료 유형, 휴대성, 자료의 분량
	주제/소재	삶을 영위하는 환경	사회문제, 문화/사회제도
		인간 관련	삶/인생, 인물, 인간성
		생활양식 관련	건강, 양육/자녀교육, 대인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직장생활, 취미/여가, 주거/인테리어
소설	스토리	흥미진진/궁금증 유발, 현실감 있는, 반전	
	캐릭터	캐릭터	
	내용기술	삽화 수록*	
비소설	내용 구성의 맥락	연구/조사 기반, 근거 기반	
	이야기 서술의 맥락	경험 기반, 철학적 사고 기반	
	정보의 기술/설명 방식	예시/사례 제공, 일화 제공, 도표/차트 제공, 삽화 수록*, 사진 수록	
	내용 이해를 위한 부가정보	연습 도구 제공, 목록/색인/요약, 부가 콘텐츠 제공	
	정보의 수준	독자 수준, 정보원의 권위	
	정보의 구성	짜임새 있는 구성	
	사고체계의 구성	이론/관점 제공	

* 삽화 수록은 소설과 비소설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요소임

발생하는 지각적 호기심”(Berlyne, 1954, 189)과 독자의 정보요구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Dali(2014)와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 동일 범주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어필 요소를 1) 독자가 도서 관련 정보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호기심과 2) 독자가 도서를 찾게 되는 상황 및 요구와 관련된 범주로 구분하고, 호기심 범주와 상황/요구 범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필 요소들을 파악해냈다. 독자의 호기심의 경우, 저자와 관련되는 어필 요소(‘저자의 전작’, ‘선호 저자’, ‘저자 관련 콘텐츠’)가 두드러졌으며, 독자가 도서의 주제 혹은 소재를 경험(‘주제/소재 관련 경험’)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2〉 참고). 또한, 독자가 평소 선호하는 주제나 소재, 장르(‘선호 주제/소재/장르’), 광고나 도서 소개와 같은 도서 정보(‘광고/책의 문구’ 등), 추천(‘전문가/전문기관 추천’ 등), 인기(‘화제가 된/호평받은’)와 같은 정보 자극 등도 독자의 호기심에 영향을 주어 도서에 흥미를 이끄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독자가 도서를 찾게 되는 상황 및 요구와 관련되는 어필 요소는 1) 지식/정보 충족, 2) 세상만사/만물에 대한 이해, 3) 일상생활의 문제/과제 해결, 4) 학습 및 정보 도구, 5) 커리어 및 자기개발, 6) 사회 트렌드 파악, 7) 감정적 요구, 8) 지적 사고 활동, 9) 내면적 성숙과 관련된 속성으로 나타나며, 독자가 도서에 흥미를 느끼고 찾게 되는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저자 어필 요소는 어필 요소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은 요소로, Dali(2014)의 연구에서 도서 속성의 일부로 ‘저자’ 요소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심지영(2022b)의 연구에서 저자 관련 요소(예, 이력, 전문성 등)가 파악되

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리뷰 내용 분석을 통해 저자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어필 요소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저자의 이력, 자질, 평판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저자의 이력 관련 어필 요소는 주로 학업/직업/경험 관련된 요소로 ‘분야 종사자/전문가’, ‘저널리스트’, ‘수상’으로 나타났다. 저자의 자질은 주로 저자의 사고 능력과 글쓰기 능력에 관련된 어필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통찰력’, ‘문장력’, ‘유머/재치’, ‘지성’, ‘주제의식’ 등이 드러났다. 한편, 저자의 평판 관련 어필 요소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된 요소로 ‘대중적 인기’, ‘호평’ 등이 나타났다. 저자 관련 어필 요소는 저자의 이력, 자질, 평판에서 전반적으로 저자의 전문성과 관련되는 특징을 나타냈으며, 주제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글쓰기 능력과 관련된 어필 요소(예, ‘저널리스트’)도 독자에게 의미 있는 어필 요소로 드러났다.

도서 어필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소설과 비소설 장르로 구분하여 별개로 이루어지거나(Alpert, 2006; Sricks, 2005; Wyatt, 2007), 장르 구분 없이 일반 도서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데 반해(심지영, 2022b; Dali, 2014), 본 연구에서는 장르와 무관하게 도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속성과 소설, 비소설 장르에서 나타나는 속성으로 구분하여 어필 요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도서의 일반적 속성과 관련하여 1) 언어/형식, 2) 주제/소재적인 측면에서 어필 요소들이 식별되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문체와 표현과 관련한 어필 요소(‘읽기 쉬운/편한’, ‘명료한’, ‘몰입감’, ‘번역의 질’, ‘균형감’ 등)이 식별되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편집/외형’, ‘자료 유

형' 등의 어필 요소가 파악되었다. 주제/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삶을 영위하는 환경과 관련된 어필 요소('사회문제', '문화/사회제도'), 인간과 관련된 어필 요소('삶/인생', '인간성' 등), 생활양식과 관련된 어필 요소('건강', '양육/자녀교육',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가 도서 이용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드러났다.

한편, 도서의 속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소설과 비소설 장르에서 각각 드러난 어필 요소는 소설의 경우 Saricks(2005)의 어필 요소('스토리', '캐릭터')와 주로 대응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비소설의 경우 Alpert(2006)와 Wyatt(2007)의 어필 요소('이야기 서술의 맥락', '기술/설명 방식')와 주로 대응되는 형태로 드러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필 요소의 다양한 관점-내용 구성의 맥락, 내용 이해를 위한 부가정보, 정보의 수준, 정보의 구성, 사고체계의 구성-과 관련된 어필 요소를 파악하며 도서이용의 관점에서 독자의 흥미 요소를 파악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독서 과정에서 도서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독자의 도서이용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 리뷰에 드러난 도서이용 계기, 도서이용 상황, 흥미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고, 독자자문 서비스 환경에서 개발된 어필 요소에 기반하여 체계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관점에서 도서이용을 하게 되는 인지적 과정과 상황에 주목하여, 도서의 선택 과정에서 '호기심'이 어떠한 정보 자극에서 비롯되는지, 도서를 이용하게 되는 독자의

'상황/요구'가 어떤 맥락에서 비롯되는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요소를 식별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도서의 관점에서 다뤄지던 '저자' 요소를 도서 자체와 분리된 창작자로서 지니는 자질, 평판, 이력의 관점에서 구분된 어필 요소로 식별하였다. 또한, 소설과 비소설이 지니는 특성에 따라 독자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어필 요소들을 파악하였으며,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주제 혹은 장르/포맷별로 두드러지게 대응되는 어필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이용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 독자자문 서비스의 이론적 개념인 어필 요소를 연계하였으며, 도서추천을 위한 선호요인 파악을 위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아온 도서 리뷰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의 어필 요소 개발은 도서관 현장 사서의 관찰 및 경험을 기반으로 체계화되어 왔으나 (Alpert, 2006; Saricks, 2005; Wyatt, 2007), 최근 Dali(2014)의 도서 이용자 인터뷰, 심지영(2022b)의 도서탐색 실험 및 인터뷰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 관점을 반영한 어필 요소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리뷰 분석 선행연구에서 도서의 특정 분야(예, 컴퓨터 분야, 순수과학/문학/여행 분야 등), 특정 대상(예, 어린이 등), 영문 리뷰(예, Goodreads)로 제한되어 연구되어 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KDC 전주제를 대상으로 국내와 영미권 도서 리뷰를 결합하여 광범위한 샘플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서 관련 어필 요소를 탐색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리뷰 대상인 도서의 속성을 파악하여 분석하기 위해 전거제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는 샘플 구성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계적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영미권 리뷰의 경우 약 1,500만 개의 Goodreads Book Reviews 데이터셋을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UCSD Book Graph(Wan et al., 2019)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해당 데이터셋 또한 역사/전기 장르를 제외하고는 소설 장르에 집중된 데이터셋으로 도서 장르 전체를 대변하는 데이터 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도서 리뷰 데이터를 대상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셋 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자문 서비스의 어필 요소를 독자, 저자,

도서의 일반적인 요소(언어/형식, 주제/소재), 소설과 비소설로 세분화한 본 연구결과는 기존 어필 요소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독자자문 서비스는 물론 도서관 OPAC, 서점, 웹 등에서 개별 독자의 도서탐색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다양한 도서탐색 시스템의 패킷 설계는 물론, 도서추천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도서 속성을 선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어필 요소는 향후 이용자 설문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개념 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대규모 도서 리뷰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질적 내용분석을 결합한 연구를 통해 어필 요소 체계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판준 (2015). 국외 도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069>
- 김판준 (2024). 국내 독서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41(2), 47-6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47>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11-1371000-000154-10).
-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성전, 심지영 (2022). 리뷰 정보를 활용한 이용자의 선호요인 식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9(3), 311-336.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311>
- 심지영 (2022a). 도서이용 속성 조합에 기반한 독서자료 분류체계 설계. 정보관리학회지, 39(4), 347-373. <https://doi.org/10.3743/KOSIM.2022.39.4.347>
- 심지영 (2022b). 도서추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도서이용 맥락 요소 탐색. 정보관리학회지, 39(2), 299-32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2.299>

- 최상희 (2009). 성인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독서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61-80.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61>
- 최지은, 유혜진, 유다빈, 김나라, 김윤희 (2016). 리뷰 감정 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상품 분석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22(5), 209-217.
<http://doi.org/10.5626/KTCP.2016.22.5.209>
- Alpert, A. (2006). Incorporating nonfiction into readers' advisory servic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6(1), 25-32. <https://doi.org/10.5860/rusq.46n1.25>
- Berlyne, D. E. (1954). A theory of human curios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5, 180-191. <https://doi.org/10.1111/j.2044-8295.1954.tb01243.x>
- Cho, H., Adkins, D., & Pham, N. M. (2022). "I only wish that I had had that growing up": Understanding webtoon's appeals and characteristics as an emerging reading platform.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 44-54. <https://doi.org/10.1002/pr2.603>
- Choi, Y. & Joo, S. (2020). Identifying facets of reader-generated online reviews of children's books based on a textual analysis approach. The Library Quarterly, 90(3), 349-363. <https://doi.org/10.1086/708962>
- Dali, K. (2014). From book appeal to reading appeal: Redefining the concept of appeal in readers' advisory. Library Quarterly, 84(1), 22-48. <https://doi.org/10.1086/674034>
- Gephart, W. J. (1970). Application of the Convergence Technique to Basic Studies of the Reading Process. Virginia: Phi Delta Kappa.
-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Lee, J. H., Clarke, R. I., Cho, H., & Windleharth, T. (2017). Understanding appeals of video games for readers' advisory and recommenda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7(2), 127-139. <https://doi.org/10.5860/rusq.57.2.6529>
- Library of Congress (2022). LC Subject Headings(LCSH). Available:
<https://id.loc.gov/authorities/subjects.html>
- Saarinén, K. & Vakkari, P. (2013). A sign of a good book: Readers' methods of accessing fiction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Documentation. <https://doi.org/10.1108/jd-04-2012-0041>
- Saricks, J. G. & Brown, N. (1989).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aricks, J. G. (2005).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ingh, H. & George, G. (2022). Instagram book review codebook: A content analysis of book reviews by bookstagrammers on Instagram. *Digitalis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Business*, 1, 766-775. https://doi.org/10.1007/9783-031-26953-0_71
- Sohail, S. S., Siddiqui, J., & Ali, R. (2013). Book recommendation system using opinion mining technique. Paper presented at the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Mysore, India.
- Tubishat, M., Idris, N., & Abushariah, M. A. (2018). Implicit aspect extraction in sentiment analysis: Review, taxonomy, opportunities, and open challeng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54(4), 545-563. <https://doi.org/10.1016/j.ipm.2018.03.008>
- Wan, M., Misra, R., Nakashole, N., & McAuley, J. (2019). Fine-grained spoiler detection from large-scale review corpora. *Proceedings of the 2019 57t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605-2610. <https://doi.org/10.48550/arXiv.1905.13416>
- Wyatt, N. & Saricks, J. G. (2019). *The Readers' Advisory Guide to Genre Fiction*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yatt, N. (2007). *The Readers' Advisory Guide to Nonfic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yatt, N. (2020). Readers' Advisory Services and Sources. In M. A. Wong & L. Saunders (eds).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Santa Barbara,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666-70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2015). *Reading Education* (revise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Choi, Jieun, Ryu, Hyejin, Yu, Dabeen, Kim, Nara, & Kim, Yoonhee (2016). System design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e-commerce products using review sentiment word analysis.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22(5), 209-217. <http://doi.org/10.5626/KTCP.2016.22.5.209>
- Choi, Sanghee (2009). Online readers' advisory services for adult patrons: analysis on American public libraries' service cas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61-80.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61>
- Kim, Pan 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069>
- Kim, Pan Jun (2024).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ield of reading program in Korea. *Journal*

-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47-6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4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2023 National Reading Survey (11-1371000-000154-10).
- Shim, Jiyoung (2022a).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reading material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a combination of book use face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4), 347-373. <https://doi.org/10.3743/KOSIM.2022.39.4.347>
- Shim, Jiyoung (2022b). Exploring the contextual elements of book use to improve book recommender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2), 299-32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2.299>
- Song, Sungjeon & Shim, Jiyoung (2022). Identification of user preference factor using review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3), 311-336. <https://doi.org/10.3743/KOSIM.2022.39.3.311>